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유각경 (1892~1966)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 베이징의 전문학교에서 공부한 유각경은 1920년대와 1930년대 교사로서 여성교육에 힘쓰는 한편 근우회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YWCA, 기독교여자절제회, 여전도회 등 각종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여성의 의식 개혁과 봉건적 유습 타파, 문맹 퇴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운동에 참여했다.

1923년에 조직된 조선여자금주회,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와 함께 YWCA와 연합하여 금주, 금연 운동, 아편, 축첩 등 사회적 추방과 함께 공창폐지운동에 앞장섰다. 1924년에는 전공인 보육을 살려 경성 안국유치원을 개설했고, 1925년 무료 야학을 설치해 여성 문맹퇴치에 나섰다.

1926년 12월 『청년』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유각경은 지식인 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가정을 위해서만 희생하던 정신을 사회 방면으로 한 걸음 옮길 것”을 주장했다. “남녀평등 문제, 부인직업 문제, 사회개조 문제 등 중대 문제”를 여성의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원만히 하자”고 이야기했다.

『한국 근대여성 63인의 초상』 (2015.1.30,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중에서

2016. 4 한국YWCA



표지이야기

서귀포YWCA의 4.13 총선 투표참여 캠페인 현장

2016년 4~5월 한국YWCA 주요일정

- 4월 20일 한국YWCA 창립기념일
- 4월 27일~29일 제2차 1단계 실무자 교육
- 4월 28일~29일 에너지 자립 정책 워크숍
- 4월 30일 제2차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제52권 제3호 통권 529호

2016년 4월 15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해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 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십만 회원이 힘차게 올리는 YWCA 새벽종소리 | 원영희
- 05 **말씀 묵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 김은혜
- “성 평등 사회를 향한 길 찾기”**
- 06 **기획①** 20대 총선 ‘화려한’ 여성정책 각당별로 살펴보니 | 편집실
- 09 **기획②** TV 드라마 속 여성 역할 다시보기 | 윤세민
- 11 **기획③** ‘안 볼 권리’ 위해 모니터 활동 강화해야 | 이경순
- 13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BEST 10
- 14 **이달의 이슈**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 박영대
- 17 **성 평등** 신고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린다 | 조미영
- 20 **청년** 청년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깨우자 | 김지영
- 22 **이달의 현장①** 5부 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 | 편집실
- 24 **이달의 현장②**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 12주년 | 배정미
- 26 **이달의 현장③** 2016년 Y-틴 전국간사협의회 | 황진아 · 조아라
- 28 **원로에게 듣는다** 최춘애 순천YWCA 증경회장 | 편집실
- 3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논산YWC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름다운’ | 편집실
- 32 **세계YWCA**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참가기 | 신보미 · 김상은 · 김예림
- 35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성경 속 ‘희년’을 문화 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한다면 | 양희송
- 37 **연합회 소식**
- 39 **회원YWCA 소식**
- 47 **4월의 한국YWCA**
- 48 **전국 회원YWCA에서 보내 온 한국YWCA 창립 94주년 축하 메시지**

십만 회원이 힘차게 울리는 YWCA 새벽종소리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세계YWCA 공천위원)

제 20대 국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총선으로 전국이 들쭉인 4월 13일 투표 결과, 야당과 제 3당이 선전한 결과를 낳았다. 현 박근혜 정부 여당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라 할 만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한국YWCA는 일찍이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탈핵, 성평등 관련 정책을 자신의 공약에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우리들의 주장을 공표하며, 지난 3월 각 당의 정책 입안자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YWCA는 2016~2017 총회를 통해 우리의 운동 주제를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과 부제를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선정했다. 특별히 6대 중점운동 중 탈핵생명운동의 새로운 방향인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소규모 설비 사업자 육성을 위한 발전차액제도(FIT, Feed-in-Tariff)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으로 입안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법안 입안을 위해 적극 '주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불의날' 캠페인은 매주 화요일마다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을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정의와 평화, 아름다운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우리 운동 방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매체를 통한 YWCA 운동 홍보와 확산 또한 중요하다. 모든 방송사들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좋은 TV프로그

램상 운영위원회를 맡아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끝없이 생명운동을 벌여온 우리 한국YWCA 운동의 건강함과 지속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밖으로는 총선 때문에 부산한 정국이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2016~2017년도 새 회기를 맞으며 제일 먼저 우리 신임 회장단, 신임 실행위원들을 기다린 한국YWCA 프로그램은 새벽종소리 영성훈련이었다. 월요일 저녁 일곱 시부터 밤 아홉 시가 넘도록 이어진 이야기들은 세상 속에서는 쉽게 나누기 힘든, 그러나 YWCA를 통해 활동하는 누구든 쉽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두루 퍼져야 할 소리였으나 가슴 속에 묻어둔 얘기들이었다. YWCA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도록 이끈 귀한 기회였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도, 국회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입회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년을 이어온 한국YWCA는 펄펄 살아있는 정의로운 기독교운동체로, 평화 통일과 탈핵생명을 위한 건강한 회원운동체로,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체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백년의 시간을 넘어 언제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사명 의식으로 더욱 높이 비상하기 위해 우리 십만 회원들의 묵상이 새벽 종소리처럼 어둠을 헤치고 퍼지는 용기 있는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김은혜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다. 본문을 통해 풍성한 생명 있는 삶, 정오의 햇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난 말씀의 절정이며, 기독교 진리의 가장 특수한 진리형식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특별히 14절은 1절에 나타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1절이 온전한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표현했다면 본문 14절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의 인간되심, 즉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다. 여기서 육신은 혈과 육을 지닌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오신 인간의 외형은 낮고 천한 모습, 썩어질 것을 표현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고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그 말씀은 그저 이상이나 이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 이 생활세계에서 자라게 생기게 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우리들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앙의 참의

미이다. 거룩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 말씀에 몸을 입히고 근육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이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썩어질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게 하고 자라나게 하며 운동성을 갖게 하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세상 안에서 육체를 입은 우리는 감각적인 일상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길 외에 우리에게 길이 없다. 깊은 산속 기도원, 높은 강대상, 거룩한 설교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이 썩어질 육신을 입을 때이다. 성육신의 신앙은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가치와 의미와 생기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신앙고백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랑의 고백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한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고백, 그 하나만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 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

20대 총선 '화려한' 여성정책 각당별로 살펴보니 실현 가능성은 숙제, 구체적 실천전략 필요

편집실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의 정책공약 경쟁도 치열했다. 그중 하나가 여성관련 정책공약이다. 그만큼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해졌다. 19대 총선 당시 대부분 정당은 보육과 여성 일자리 정책을 별도로 만들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 중심의 관계에서 자유로우면서 육아, 복지 등 민생정책에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저출산문제 해소를 부각하면서 여성 일자리와 보육을 연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대상별 공약을 따로 만들지 않은 새누리당은 노동, 복지 등 분야별 공약에 여성 의제를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여성 의제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이다. 여성정책 공약도 가장 일찌감치 내놓았다.

■ 새누리당 '마더센터' 제시...더불어민주당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3040 여성을 겨냥한 '일가(家)양육 일자리 더하기' 정책이 대표적이다. 가족친화인 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근로시간 단축휴가제·단축근로제·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연 18만 개의 여성 재취업 일자리를 만들고, 경력단절 주부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저출산·여성일자리 대책인 '마더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마더센터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했던 1980년대 독일에서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전국 1천여 곳으로 확산됐다. 완전히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아이를 함께 돌보고 엄마들의 자립을 돕는 공간을 지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제히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도화 하는데 모두 적극적이다. 노동, 폭력, 돌봄

분야에서 입장도 비슷하다. 아빠 돌봄권이나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공약도 공통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성차별 없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일찌감치 '여성 및 성평등 의제발굴 TF'를 구성해 여성정책 개발에 주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단체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3월 7일에는 '여성·성평등 공약-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들의 임금차별 해소 방안으로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의무화,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 등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공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개선, 배우자 출산 휴가,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특히 저출산과 경제불황의 탈출구가 적극적인 성평등에 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제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여성 폭력과 혐오 등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 국민의당 '성평등 사회' 목표...정의당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국민의당은 '여성이어 당당히 일하라 맞서라 누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제도와 관행, 문화를 변화시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 소신대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역할분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성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출산·육아 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지원 내실화, 돌봄 노동자의 경력 인정 기준마련과 처우개선, 국민연금 양

육크레딧 제도 확대, 산모전담간호사제 도입, 체계적 지원을 통한 출산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데이트성폭력 처벌 규정강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여성친화적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최대 민생과제인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정책을 내세웠다. 차별없는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보장과 경력유지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 고용구조 개선,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페널티 강화를 약속했다.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출산크레딧 확대 도입,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모성관련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공공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정책에 담았다.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북한이탈 여성주민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도 내놨다. 특히 정의당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힘을 실었다. 여성농업인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해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장밋빛 공약으로 불릴 만큼 화려한 정당별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정당별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구태의연한 재탕, 삼탕 공약에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몇몇 정책은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추려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4개 정당의 주요 여성정책 공약

정당	여성정책	보육	워킹맘
새누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혜택 확대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성폭력사건 처리과정 2차피해 방지 교육 가정폭력 피해아동 사이버상담실 1366 지역센터 확대운영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출산·육아서비스 원스톱 제공 영아중일제 서비스 만2세까지 확대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아동학대 관련예산 상향 피해아동지원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자립센터 '마더센터' 설립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 도입 영아중일제 서비스 만2세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확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30%까지 확충 0~5세 보육료 표준보육비용 지원 양육관련 휴가 확대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 강화 6세 미만 아동 독감예방접종 무료화 난임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월통상임금 100%로 인상 취학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감정노동자 처우 개선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남녀 차별없는 근로조건 정착 가정폭력 예방 노력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육아 중 여성에게 국민연금혜택 확대 산모 의료지원 확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급여 50%로 상향조정 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경력 단절 문제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강화 3대폭력(데이트, 스토킹, 온라인) 대응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어린이 건강 담당의사 도입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사회서비스종사자 임금인상, 좋은일자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도입 출산시 양육용품 지원 핀란드형 마더박스 지급 출산전후 휴가 120일로 확대 가족돌봄 휴가제 신설

TV 드라마 속 여성 역할 다시보기
- <미생>과 <육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윤세민 (한국YWCA 좋은 TV 프로그램상 심사위원,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나 이래서 회사에서 여자랑 일 못하겠다는 거야. 희생정신도 없고, 도대체 뭘 기대해 뭘!”

“그것 참 어떡하려고 또 임신을 했대, 아 참 이기적이다.”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기껏 교육시켜 놓으면 결혼에 임신에 남편에 애기에, 참 핑계도 많아. 그것도 아니면 눈물바다로 해결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게 다 여자들이 의리가 없어서 그래.”

듣기에도 민망한, 직장 내 여성을 향한 성차별 발언들이다.

두 해 전인 2014년에 직장인의 애환을 진지하게 다루며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tvN 드라마 <미생>. 위 발언은 그 드라마의 5회 분에 나왔던, 계약직 인턴 안영이(강소라)와 임신을 한 선차장(신은정)을 향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쏟아낸 그야말로 '의리' 없는 성차별 대사이다. 이 <미생> 5회 분은 직장 여성들의 현실적 고충, 즉 워킹맘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등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더욱 강하게 진화하는 여성 캐릭터

TV 드라마 속 여성 직장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해왔다. 1990년대 드라마 속 '아름다운 프로'였던 여주인공들은 페미니즘의 급부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현실을, '칙릿'(Chick Lit)¹⁾ 드라마 속 자의식 강한 '올드미스'로서 1990년대 알파걸의 성장을 반영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불안이 가속화된 2000년대 후반 이후 드라마 속 여성들은 악화된 생존조건이 일상적 풍경으로 내재된 모습을 보인다. 2007년 <커피프린스 1호점>(MBC)이 남성만을 채용하는 가게에 취업하기 위해 남장을 불사하

1) 1990년대 중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일종의 소설 장르로 20대와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주제로 삼는다.

는 고은찬(윤은혜)의 모습으로 여성의 고용불안을 암시했다면, 2011년 <동안미녀>(KBS)는 나이를 속이고 취직하는 ‘노처녀’ 소영(장나라)을 통해 성차별적 고용 조건을 지적했다. 급기야 2012년 <청담동 엘리스>(SBS)에서는 계약직을 벗어날 수 없던 한세경(문근영)이 목표를 ‘취직’으로 수정하며 ‘청담동 머느리 되기’ 프로젝트에 뛰어들기까지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강하게 진화한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직장의 신>(KBS) 주인공 ‘미스 김’(김혜수)은 고용불안 시대가 낳은 최고의 슈퍼 히로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을 ‘대체 가능한 허드렛일’로 폄하하는 사회에서 미스 김은 바로 그 ‘잡무’를 통해 오히려 회사를 구원하며 여성노동을 향한 위계적 시선을 전복했다.

2016년 현재 진행형 화제의 드라마 <옥씨남정기>(JTBC)의 옥다정(이요원)은 ‘갑’의 횡포나 ‘을’의 설움에 초점을 맞춘 직장인 드라마가 있고 있던 가치,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그리고 일하는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중시한다. 그것은 <미생>에서 남자 동기들이 성취감을 향해 달려가는 사이 성차별과 싸워야 했던 안영이(강소라)처럼 여성들에게는 요원하기에 더욱 절실한 가치다. 갈수록 주눅 들어가는 직장인 여성들에게 <막돼먹은 영애씨>(tvN)의 생명력과 미스 김의 정의, 그리고 1990년대 여성 드라마 선배들의 ‘자부심’까지 종합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옥다정 캐릭터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여성 주인공이다.²⁾

여성으로서 ‘옥다정’의 생존기


<옥씨남정기>의 성차별 비판은 한층 더 직접적이

다. 1회에서 옥다정이 처음 극에 등장한 이후 약 10분 동안 이 시대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성차별을 압축해 보여준 에피소드는 단적인 예다.

옥다정이 계속해서 ‘자존심’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결국 ‘갑질 사회’에 저항하는 ‘을의 반란기’이기 전에,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존엄을 찾고자 하는 ‘여성의 생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TV 드라마는 흔히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능동적, 주체적,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 은근히 혹은 의도적으로 ‘남성우월’을 강조하는 TV 드라마는 남성에게는 능력, 즉 권력이나 돈이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외모나 성적 매력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조장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순종적인 여성은 사랑받지만,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은 갈등 제공자로 귀결된다. 특히 직장 여성은 그들의 전문성과 애환보다는 직장 내 도구로 그치며 부정적으로 그려지곤 한다.

이렇게 TV 드라마 속 여성은 시대착오적으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옥씨남정기> 옥다정의 고군부투가 참으로 대견하기만 하다.

옥다정 화이팅! 



‘안 볼 권리’ 위해 모니터 활동 강화해야

이경순 (미디어 평론가,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

한국YWCA가 제정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 상을 처음 제정하던 무렵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은 상업방송의 영향으로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져서 선정성과 폭력성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방송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높던 때였다.

이러한 때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방송의 부정적 역할을 비난하기 보다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이다.

이 상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가운데 특히 ‘여성-성 평등’ 부문 프로그램들의 변화는 ‘여성-성 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다.

1996년 첫 해에는 ‘여성’ 부문의 후보작을 찾기 힘들 만큼 우리 방송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대단히 낮았다. 그 무렵 활동을 시작한 서울YWCA 방송 모니터회 토론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성 차별적 내용이나 대사를 지적하는 사례가 매우 잦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우리 방송의 성 평등 인식이 만족할 만하게 바뀌지는 못했다. 방송의 공익성은 뒤로 밀쳐두고 시청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마구 쏟아내는 소위 ‘막장 드라마’들은 여성의 이미지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는 신분상승을 위해 많은 것을 가진 남자를 차지하려고 온갖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소위 ‘악녀’ 캐릭터가 착한 여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으로 그려지기 일쑤다.

이같이 젊음과 외모를 내세워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는 왜곡된 여성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2) “직장여성 캐릭터의 빛나는 후예, 옥다정”, 김선영, <한겨레21> 1106호 참조.

미성년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종편과 케이블 등 매우 다양해진 다채널시대는 시청률 경쟁을 위해 선정적인 내용과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한층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하겠다.

이처럼 각종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성단체들이 연대해서 '여성을 성 상품화 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예전 활동에서 그 답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로는 유흥가 앞에 명품 백을 들고 서 있는 젊은 여성 사진에 '한국 여자' 라는 제목을 부친 현대 미술 작품에 대해 네티즌들이 "한국 여성들을 명품 백을 사기 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김치녀'로 묘사했다"고 전시회를 주최한 크리스찬 디올에 거세게 항의함으로써 작품 전시를 중지시킨 일을 들 수 있겠다.

말로는 남녀평등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여성을 비하하고 성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좋은프로'상줘 '건강방송' 만들자

경실련·YWCA등 시청자단체 우수프로 시상제 방송가 큰반향

최근 민간 시청자단체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해 방송 감시활동의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올들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방송모니터회, 시청자연대회의, 대한어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 등 민간 시청자단체에서 우수 프로그램 시상 제도를 마련해 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일선 제작진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지난해 뒤늦게 방송 프르에 대한 모니터 모임을 꾸린 경실련은 지난 6월 회원들의 상반기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한국방송공사 1텔레비전 <신TV문학관>의 <깊이 날들>을 첫번째 '시민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시상한 데 이어 9월에는 하반기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2회 분기별 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실련은 회원들의 내부 의견뿐만 아니라 5백 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시청자 만족도와 외부 전문가집단의 추천까지 종합해 상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의 언론 관련 단체와 참고목학부모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민간



제1회 YWCA가 뽑은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상제에서 평화, 환경, 여성 부문의 3개상을 휩쓴 문화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진행 장면.

단체로 구성된 시청자연대회의는 지난 9월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의 첫번째 수상작으로 문화방송의 <쇼미 기온 플>을 뽑아 폐지될 운명이던 이 프로그램이 다른 제목으로나마 존속하는 데 상당한 버팀목이 됐다. 연대회의는 이처럼 시상제도의 효력이 크게 나타나자 내년부터는 선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매달 한차례씩 좋은 프로그램을 격려하기로

주요 권총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상 부문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시상제도는 심의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방송협회가 해마다 9월 방송의 날에 시상하는 '한국방송대상'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한국 프로듀서상'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집단 찬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밖에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톨릭언론대상과, 지난 99년부터 사단법인 불교토가 주최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 주관하는 '보리방송문화상' 등이 있으나 종교적 기준에 따른 평가에 그쳐왔다.

시청자단체의 시상제도 도입은 비판 위주의 모니터 보고서들이 '사후 약방문' 격의 소극적인 견제 효과에 그친 데 비해 공이성이 뛰어난 숨은 프로그램들을 공개적으로 격려함으로써 방송사들의 시청률 지상주의에 적극적인 제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보니 수상작의 장르가 시사 프로 위

김경애 기자

1996년 12월 9일 한겨레

미디어의 횡포를 견제하려면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시청자'가 되어야 한다.

방송 제작진들이 "보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나온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안 볼 권리'를 주장하고, 시청거부 운동을 펼쳐야 한다.

성 차별을 받지 않을 여성의 권리는 우리 여성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성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한국YWCA의 성 평등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하며, 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이 이뤄질 때까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은 이어져야 한다. ♀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BEST 10

20년간 좋은 TV 프로그램상 역대 수상작 127편 중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작품들

축하합니다!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대상 EBS <다큐프라임> 광복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
성평등 부문상 SBS 8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
생명평화 부문상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특별상 M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시상식은 4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립니다.



제5회 여성-옴니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성 인권 10년, 김부남 사건에서 롯데호텔 성희롱까지' (2000년)



제6회 대상 KBS1 <한민족 리포트> (2001년)



제8회 대상 MBC 특별기획 인터뷰 다큐멘터리 <가족> 4부작 (2003년)



제9회 여성 부문상 KBS <한국 사회를 말한다> '출산파업-여자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2004년)



제13회 여성 드라마부문상 KBS <엄마가 뽀뽀> (2009년)



제14회 대상 CBS 블로그 다큐 <용산, 아벨의 죽음> (2010년)



제16회 대상 MBC 창사 50주년 특집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 (2012년)



제17회 대상 SBS 대기획 <최후의 제국> (2013년)



제18회 대상 SBS 스페셜 3부작 <부모 vs 학부모> (2014년)



제19회 대상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 보도' (2015년)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 전원구조 기회를 날린 이유를 찾자

박영대 (더불어삶 정책실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가 돈에 눈이 멀어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과적을 일삼으며 세월호라는 여객선을 운항하다가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세월호 선원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승객들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빠져나왔으며 ③ 대한민국 해경은 극도로 무능한 사람들이라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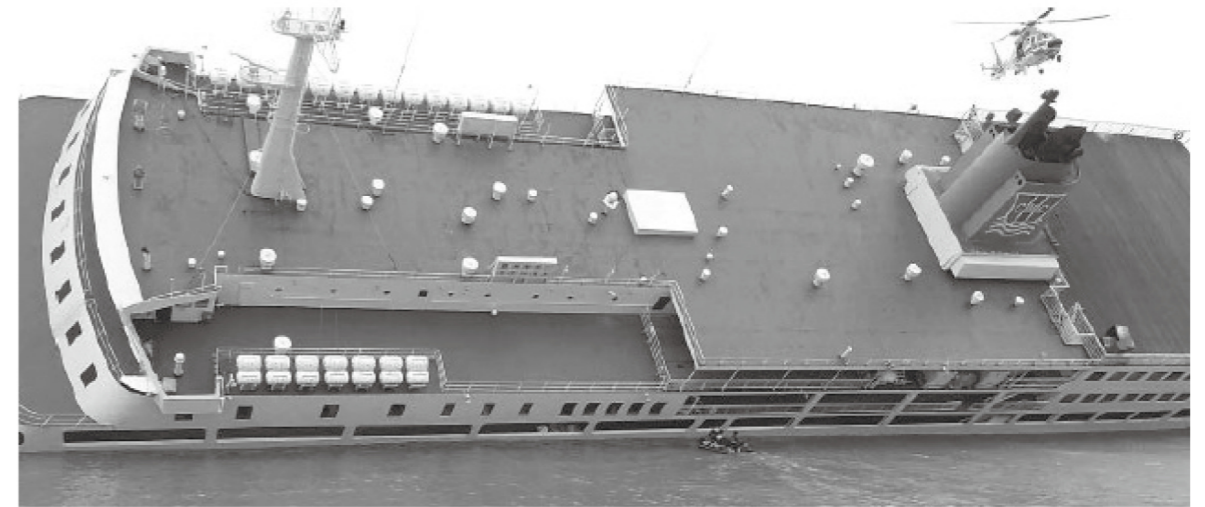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규정한다면 사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사고원인도 분명하고,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나 선장·선원들은 사법처리되었으며, 해경은 해체(정확하게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안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성격의 사건일까요?

시간적 재구성 “전원 구할 수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 최모군이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119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해경 P123정(이하 123정), 해경헬기 B-511호, 512호, 513호 등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전 9시 13분경 근처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세월호 가까이 접근합니다. 만약 이때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켰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유조선인 둘라에이스호에는 기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해수면과 갑판 사이 높이도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둘라에이스호에는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둘라에이스호 외에도 어업지도선, 어선 등이 속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원들은 이상하게도 해경이 언제 도착하는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승객들을 전원 구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어진 가운데 해경 헬기들이 도착했으나 승객들은 퇴선시키지 않았다.

다음으로 오전 9시 25분경부터 해경 헬기들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만약 이 헬기들에 타고 있던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로 내려와서 승객들을 퇴선시켰다면 역시 전원구조가 가능하였습니다. 항공구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므로 세월호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조타실로 들어가 퇴선방송을 해도 됐고 아니면 그냥 객실로 들어가 육성으로 퇴선지시를 내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바구니를 내려 한 명 한 명 구조하는 대단지 소극적인 방식의 구조를 했습니다. 세월호 안에는 476명의 승객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구조를 하니 결국 헬기 3대가 구조한 인원은 총 35명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었는데 헬기 대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많은 승객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또 바구니로 올려 구조한 승객들에게 배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오전 9시 35분경 해경 123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함

니다. 123정은 직접 세월호에 접안하지 않고 신고 있던 7인승 고무보트를 내려 역시 소극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합니다. 오전 9시 38분경 고무단정이 첫 번째로 출발해 세월호로 가서 5명을 구조해 123정에 인계합니다. 그 5명은 모두 기관실 선원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고무보트가 두 번째로 출발하여 부부와 아이, 그리고 2명의 사람을 구조해 옵니다. 그 2명 역시 기관실 선원이었습니다. 이로써 기관실 선원 7명은 전원구조 되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경 드디어 123정 자체를 세월호 조타실 쪽에 접안하고 조타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배의 조타실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선원입니다. 123정은 조타실 선원 전원을 구조합니다. 심지어 이때도 선내에서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계속됩니다. 그후 123정은 세월호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오전 10시 6분경 다시 접안하여 3층 선수 유리를 깨고 몇 명의 승객을 구조하고 다시 멀어 집니다. 오전 10시 17분경 세월호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건 구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거의 취재를 하러 가거나 구경을 하러 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전문가는 123정의 구조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월호 침몰원인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고 원인을 모를 때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 당시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피고인 조○○에게 우현으로 대각도로 조타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피고인 박○○에게 대각도 조타에 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선장 · 선원재판 항소심 판결문(2014노490)

대법원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위 판결문은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29일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제2차 청문회 주제도 ‘침몰’이었습니다.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AIS(선박자동식별 시스템) 항적도의 신뢰성 문제, 조타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침몰’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할 정도로 정부가 현재 제시한 침몰원인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구조 기회 왜 날렸는가

전 국민이 생중계로 304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할 마음만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전원 구조할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① 둘라에이스호가 왔을 때 선원들이 퇴선명령을 내렸다면 ② 헬기 항공구조사가 퇴선 유도를 하였다면 ③ 123정이 대공 마이크로 퇴선 방송을 하였다면 ④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에 올라가 퇴선 유도하였다면 ⑤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조타실에서 퇴선 방송을 하였다면 ⑥ 그것도 귀찮으면 무전기를 들고 있던 세월호 선원에게 지시해 안에 있는 선원이 퇴선 방송을 하도록 하였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은 단지 무능일까요? 당시 해경에게서 승객들을 퇴선시킬 의사는 조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자본의 탐욕, 선원의 이기심, 해경의 무능으로 구성된 사건이 아닙니다. ‘침몰원인은 알지도 못하고,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으며, 진실은 계속해서 은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갖고 진실을 요구할 때 진상규명의 날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회적 진상규명 운동이 필요합니다. 🙏

신고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린다 - 가정폭력 막을 방법은 우리에게 있다

조미영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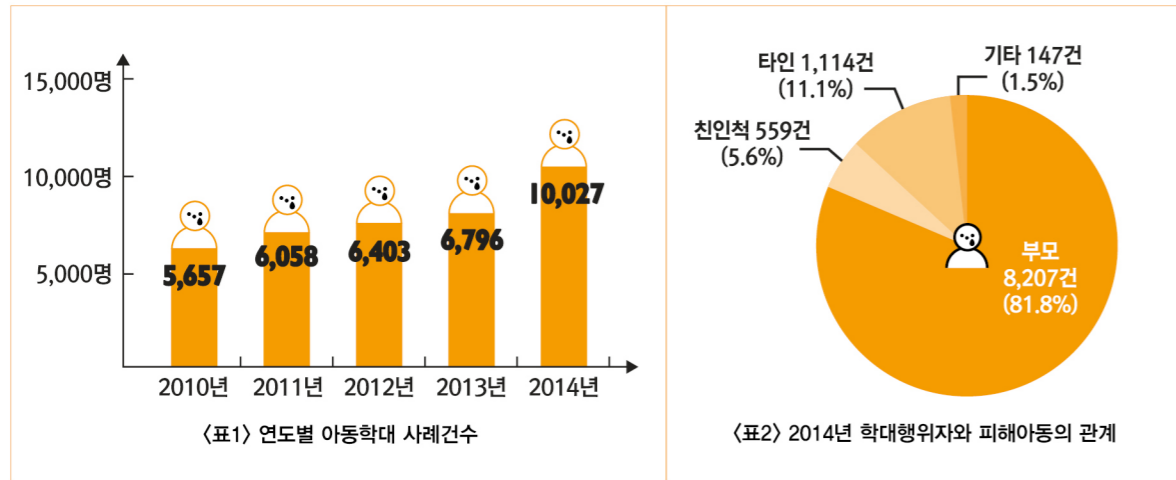
최근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인 아동학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동학대는 오랜 인고의 역사가 있다. 서구 유럽에서 아동학대는 로마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동들은 희생당하고,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손상당했다. 지글러와 홀(1989)에 의하면, 공공건물이나 다리에 현정하기 위한 영아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로마의 독트린 ‘부권’은 아버지에게 아동에 관한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전설에도 에밀레종 제작에 아이가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는 가장에게 여성과 아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인권의식이 높다는 미국에서조차 아동학대예방협회는 1875년 생겼는데, 동물학대예방협회 이후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80% 이상

학대는 힘의 차이를 가지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영혼의 죽음이다. 실제 사건에서 보듯 며칠씩 욕실에 갇혀 있거나 굶어도, 온몸에 락스 세제를 받아도 피해자인 아동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친부모가 8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이 그 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우리는 가끔 놀이동산이나 대형마트에서 부모에게 호된 체벌이나 폭언을 듣고도 부모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채 오히려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어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대받은 아동도 행위자인 부모로부터 도망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부모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런 아동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일부는 가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사회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힘의 차이에서 오는 폭력의 특성상 가정폭력의 또다른 형태인 부모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맞을 짓이란 없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먼저 폭력은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기에 저항이 불가능한 가장 약한 대상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폭력의 지속

성과 반복성과도 관련이 있다. 다음은 민감성의 부족이다.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검찰, 법원이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위탁한 행위자에 대한 치료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상당수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어려서 매일 맞고 자랐다. 난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서 사람 제대로 만들려고 한 것이지 내가 밥을 굶겼어? 학교를 안보내줬어?”라며 흥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폭력은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잘못된 문화에서 비롯된다. 인권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식이다. 다른 사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자녀가 밤새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온 동네방네 소금을 얻으러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이

었지만 그것을 당하는 자녀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녀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태도인가? 또 많이 하는 말이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맞을 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설상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를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만히 있지 말라

만약 이웃에서 매일 밤 부부간에 고성이가오고, 뿔가와장창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이나 호느낌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또 시작이네. 오늘도 조용히 잠자기는 틀렸어’라며 짜증을 내거나 ‘싸움구경처럼 재미난 게 없지’라는 호기심으로 귀를 쫓긋 세우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웃이 걱정되어 신고를 하거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어렵게 용기 내어 신고했는데 당사자는 정작 “좀 크게 싸운 것뿐이에요”, “아이가 잘못을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느라고 한 것뿐이니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해 나의 용기는 남의 집안일에 쓸데없이 간섭한 오지랖 넓은 아줌마쯤으로 취급받게 된다면 이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YWCA 회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아파트에 산다면 경비실에 전화해서 주의를 줘도 효과가 있다. 대개 행위자들은 이웃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소한 신체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더 용기를 낸다면 112에 신고해서 피해자를 적극 도와야 한다. 경찰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가정폭력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행위자들의 폭력행위도 점점 교묘해져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폭력을 멈출 수 없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한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소개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10만 회원단체인 YWCA가 나서야 한다

한국YWCA는 회원의 절대 다수인 여성과 아동을 학대하는 폭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분 회원YWCA는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보미 회원들에게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반폭력 감수성으로 훈련돼 생명살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사건이 터지면 제도정비, 처벌강화 등 사후대책 마련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울산 자매학대 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 이후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201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7791건에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1만 27건에 달했다. 2015년엔 신고건수 1만 9209건, 아동학대 판명 건수는 1만 170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데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집계다.

수치 증가가 실제 발생건수 증가를 나타내기보다는 인식개선 효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처벌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YWCA가 시민단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러분의 관심과 돌봄으로 예방할 수 있다.

청년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깨우자

청년들에게는 단어조차 생소한 성 인지. 2015년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YWCA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과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청년Y 지원사업'을 선발해 4개 회원YWCA(안산, 의정부, 전주, 청주)에서 진행했다. 그 중 청년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주YWCA의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김지영 (전주YWCA 대학·청년Y 간사)

전주YWCA에서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로 변화하는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해 청년 스스로 고민해 보는 '성 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시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과 결혼 등의 문제를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진단해보았다. 이를 통해 크게는 청년 리더십 향상과 대학·청년Y의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전주 대학·청년Y 회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일시	프로그램	내용
4월 11일(토)	익산 여성영화제 참석	- 영화 '도희야' 감상 - '도희야' 정주리 감독과의 대화
	사례 찾기(1)	- 지역사회 내 성 인지 사례 찾기
10월 14일(수)	성 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1)	- 성 인지 감수성 이해
	사례 찾기(2)	- 외국의 성 인지 사례 찾기
12월 23일(수)	성 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2)	- 성 인지 감수성 워크숍 진행
	평가 회의	- 추후방향 논의

전주YWCA 대학·청년Y 성 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성 인지 사례 찾기 교육

대학·청년Y 회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라는 말은 생소했을 뿐 아니라, 평소 고민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익산 여성영화제를 찾아 영화 '도희야'를 감상했다. 정주리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성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영화 '도희야' 포스터



익산 여성영화제에 참석한 참가자들

성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청년회원들이 직접 영화를 소개하고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해 보면서, 영화 내용을 넘어 성 소수자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 더욱 깊이있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특강을 통해 성 인지적 관점의 정의와 성차별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특강은 청년들이 성 평등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한번의 특강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성 인지의 개념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특강 이후 지역사회 속에서 이 시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특별히 성 인지 사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결혼 문제, 혼수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육아 문제, 외모 지상주의, 휴게소 남·여 공중화장실 개수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찾아내서 이야기했다.

성 인지라는 주제 자체가 청년들이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주제였고, 청년들의 군입대와 취업준비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YWCA가 주력하고 있는 성 평등 운동, 또 성 인지 정책에 관한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학·청년Y 회원들이 가져야 할 성 인지적 관점이 무엇이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성차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성적 자기 결정권을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성 인지 교육도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 인지적 관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성평등 운동이 2016~2017년 한국YWCA 중점운동 중 하나인 만큼, 우리 대학·청년Y 회원들에게 자신의 생활과 사회·문화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진단해 보고 문제제기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회원YWCA에서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YWCA 운동이 가진 평화와 생명, 나눔과 정의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회원증모 워크숍이 5부 지역위원회별로 진행되었다. 지역위원장들의 소감을 통해 워크숍 이후 다짐을 들어 보았다. (정리: 편집실)

북부 “회원증모는 하나님나라 건설운동”

김말숙 (북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천YWCA 회장)

YWCA는 회원 조직이다. YWCA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과 자원이자 힘의 원천이 회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회원 증모는 이렇게 소중한 회원을 YWCA조직의 성장과 확장에 동참시키는 하나님나라 건설운동이다. 회원증모 역량강화를 위한 4월 1일(금) 열린 북부지역 워크숍은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때와 달리 회원 증모대상을 연령별이 아닌 사회 각 층으로 분류했다. YWCA 프로그램 수강생(본부, 지부), 교인, 친인척, 사회저명인사(정치인, 유력재산가 등), 단체 등을 어떻게 회원운동에 동참시킬 것인가에 관해 열린 토론 후 의견을 종합해 발표했다.

회원증모 역량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워크숍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회원증모에 대한 비전과 YWCA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회원증모운동이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YWCA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YWCA로 나아가는 귀한 디딤돌이 되길 기도한다.

경기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영주 (경기지역위원회 위원장, 의정부YWCA 회장)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3월 24일(목) 경기지역 회원증모 워크숍을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했다. 12개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 70여 명이 모여 2016년도 회원증모에 대해 고민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2부 순서는 회원증모를 위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YWCA와 인연을 맺은 지 여러 해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경기지역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요즘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안다. 100년의 역사로 한국 땅에 YWCA를 바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사기에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겸손히, 선배 위원장님들의 발자취를 밟아가겠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 경기지역 회원YWCA를 보듬고, 지역에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위상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부 “소명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으로”

문상순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울산YWCA 회장)

생명체가 소생하는 봄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계절이다. 산뜻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8일(금) 2016년 동부지역 회원증모 전략수립 워크숍이 열려 회장, 사무총장, 이사,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명진숙 국장과 이화여대 장운재 교수의 강의로 회원증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원YWCA가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자원지도자 개발, 회원증모의 어려움과 관리, 유지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열정적 강의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이 날 워크숍은 동부지역 15개의 회원YWCA가 함께 회원증모 계획을 세우고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2016년은 YWCA가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성의 지도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회원증모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더 박차를 가하겠다.

서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

이혜경 (서부지역위원회 위원장, 목포YWCA 회장)

3월 22일(화) 광주YWCA 강당에서 서부지역 YWCA 11개 지역 이사, 위원, 실무자등 110여 명 참석했다. 강교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이 ‘회원증모 운동, 하나님나라 확장운동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원증모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해주셨고, 김재춘 소장(가치혼합경영연구소)이 회원증모운동의 전략과 사례들을 통해 성공적인 회원증모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인 회원분석 및 목표설정으로 회원증모에 대한 비전과 자부심을 갖고, 각 지역에서 YWCA가 건강한 회원운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YWCA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많지만, 서부지역 위원장의 사명을 맡게 되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연합회와 11개 회원 YWCA와 함께 협력하여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중부 “더 많은 사람들을 YWCA로 초청하자”

김경순 (중부지역위원회 위원장, 천안YWCA 회장)

중부지역 8개 회원YWCA가 한자리에 모여 회원증모 사례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마음이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YWCA의 진정성 있는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열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사랑과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YWCA의 생명살림 텃밭 위에서 정의, 평화창조질서 보전이라는 대승적인 명제를 잘 수행하면서 성실히 실천할 때 YWCA 가족으로 초청하는 손길이 당당할 수 있고, 그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손길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뜻을 기대하게 하는 워크숍이었다.

지역 위원장으로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YWCA와 함께 할 것이다. 8개 회원YWCA와 연합회간 가교 역할로 서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을 붙잡고, 섬김에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녀성을 잃으면 민족을 잃는다. 녀성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다”

지난 3월 26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주도서관에서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 12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활동보고와 축하공연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조선족 공동체에서 연변 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2014년 재도약을 선언했던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제4대 리해숙 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올해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2년 여간 연변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30여 명의 이사진이 일심동체가 되어 여성운동, 청소년운동, 환경운동, 조직운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성인으로 구성된 민들레합창단 운영, 소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민들레 방과후학교 운영, 환경운동으로 아나바다장터 운영과 EM비누 제작 및 보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회원참여를 넓히기 위해 웃음치료, 어학강좌(한국어, 중국어 등) 등의 프로그램을 보강했다.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플랫폼 지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연변사회에서 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원활동가의 헌신적인 지원과 참여에 전문성을 가진 실무역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데,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재도약 선언 2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 요충지에 자리 잡은 연변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부터 민들레문화교류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들의 리더십을 기르는 한편 생명, 환경, 평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연변이 남과 북, 동북아시아를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매년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일에 열리는 회원의 날에 즈음해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연합회 제1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변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 운영, 행정사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영수 위원장, 장미란 위원, 홍인옥 위원, 서희정 위원 실무자 등 6명을 파견해 사무실 이전, 운영규정 개정을 포함한 행정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했다.



창립 12주년 회원의 날 행사에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연변 조선족 공동체 재생을 위한 활동

2016년 현재 연변의 조선족 공동체 사회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주 설립 요건에 따르면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조선족 자치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변자치주 인구의 50%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이 생계를 찾아 대도시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 연변 인구 227만 명 중 조선족은 약 80만 명으로 35% 수준에 불과해 1952년 자치주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1995년 자치주¹⁾로 변경).

농촌마을 50% 소실, 논밭 90% 타민족 경작, 조선족 학교 80% 폐교, 8다(多) 현상 등이 현재 연변사회의 단면이다. 8다 현상은 과부, 홀아비, 노총각, 이산가족, ‘껌라오주’(啃老族, 분가할 나이가 되도 부모와 떨어져 지고 생계를 의탁하는 젊은 세대), 성(姓)은 알지만 본(本)은 모르는 세대, 할아버지의 고향을 모르는 세대, 한족사위며느리 등의 증가를 말한다.

한편으로 연변의 도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 ‘부동산 공룡’으로 불리는 완다그룹이 ‘코리아타운(서울의 거리)’을 조성하면서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나섰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영향력과 길림-훈춘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는 연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때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가 안정된 운영체계 구축으로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로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조선족 공동체 재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편 5~6절)

이 말씀이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활동을 통해 증거되기를 기대한다. 

1) 연변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다. 연길, 용정, 도문, 훈춘, 화룡, 돈화 등 6개 시와 왕청, 안도 등 2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주제로 지역별 활동계획 나누다

청소년인 Y-틴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Y-틴 담당 실무활동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29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Y-틴 전국간사협의회가 진행됐다. (정리: 연합회 Y-틴 위원회 천유란 간사)

새학기가 시작되는 바쁜 일정임에도 전국의 27개 회원YWCA에서 Y-틴 담당 실무를 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 활동현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생생히 나누었다. 청소년 담당 간사로서 고충을 서로 위로하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청소년 운동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YWCA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청소년운동 활성화 방안을 나누고, 각 회원YWCA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다.

2016년 Y-틴 전국 중점운동 주제는 지난 1월 Y-틴 전국협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정했다. Y-틴 청소년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주제를 결정했고,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날 전국간사협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주제와 관련해 김동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의 강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이슈의 의미와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12.28 한일합의의 문제점, 또한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 Y-틴 회원들은 이 주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평화, 여성폭력 문제 등 다소 어렵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를 고민하며 활동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역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함 설치 등 모금활동, 배지와 우표 등을 활용한 편지와 카드 제작 등 홍보활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거공간인 '나눔의 집' 등 기관방문과 더불어 12.28 한일합의 이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이슈 스터디 등 지역별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Y-틴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천하도록 Y-틴 간사들이 지지해 주고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품으며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Y-틴 간사로 첫 발을 내딛은 시간

황진아 (인천YWCA 간사)

Y-틴 간사가 된지 3주째가 되는 날이다.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도착한 연합회

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간사님들과 인사를 나누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1시간 동안의 강의로 2016년 Y-틴 중점운동을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기부여와 지식전달이 충분할지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준비해오신 영상들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으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위안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불쌍한



2015년 11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선포식에 참여한 청소년들

할머니들의 아픔이라고 국한시켰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Y-틴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받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절실하게 다가왔다. Y-틴 간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 시간을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공부하다

조아라 (목포YWCA 간사)

육 깊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머지않아 일본 정부도 피해자 할머니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 날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Y-틴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YWCA의 청소년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한다. ✨

2016년 Y-틴 전국 중점운동 주제가 '일본군 위안부'로 결정되었다. 막상 Y-틴 회원들과 함께 중점주제에 대한 활동을 하려고 하니 나조차도 아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고 아이들과 쉽게 다룰 없는 주제여서 걱정이 되었다. 때마침 이번 기회를 통해 주제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합회를 찾았다.

강의를 통해 Y-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아졌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시위 및 나비기금 국제 활동 그리고 나비벤티달기 캠페인 등은 Y-틴과 함께 계획해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될 것이다. 향후 Y-틴 회원들과 더

“세월이 흘러도 더욱 젊어지는 YWCA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의 자원지도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이번 호에서는 최춘애 순천YWCA 증경회장을 신성의 순천YWCA 사무총장이 4월 6일(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편집실)



최춘애 증경회장 약력

- 1963~1967 여수시청 근무
- 1976~1980 순천YWCA 위원
- 1981~1985 순천YWCA 이사
- 1988~현재
- 1997~1998 순천시여전도회연합회장
- 1998~2001 순천YWCA 회장
- 2003~2005 순천YWCA 건물건축위원장
- 2006 제36회 YWCA 전국대회 30년 봉사상
- 2014~2016 순천YWCA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
- 2016 순천YWCA 30년 봉사상

신성의 : 오늘 이렇게 회장님을 뵈니 반갑고 참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도회, 장로회 활동을 해 오고 계신데요. 1981년부터 순천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처음 YWCA와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춘애 : 순천YWCA는 지역에서 바자회로 아주 유명했지요. 당시 저는 구체적으로는 YWCA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좋은 일이 있으니 같이 해보자는 최병님 이사님과 최문옥 사무총장님의 권유로 처음 YWCA에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순천 지역에 여성단체들이 참 많지만 순천YWCA를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청렴결백하게 일 잘하는 YWCA라고 소문이 났어요. 지역 주민들은 YWCA에는 어떤 일을 맡겨도 손색없이 해낸다고 생각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성의 : 네. 순천YWCA에서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오셨고, 특히 부각만들기를 회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지요?

최춘애 : 바자회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팔면 수익금이 많지가 않아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을 생각하다가 부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부각을 참 잘 만들어요. 깨를 사다가 직접 손으로 깨를 깎아서 껍질을 벗기는데 그거 하다가 팔목이 시릴 정도로 많이 했지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6시에 헬레벌떡 뛰어가면, 이사님들은 20분 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기억이 나네요. 깨를 제대로 못 붙이면 혼도 나고 했는데, 재정 마련을 위해서 이사들과 직원들이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성의 : 네. 순천YWCA 건물을 지을 때 건축위원장으로 섬기시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와 손의 공교함을 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춘애 :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제목 3가지를 써내라고 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YWCA를 위한 기도를 적어 뵈어요. “하나님, 제가 해 보니까 그 좁은 건물에서 바자회 때마다 장엣국을 끓이고 팔죽을 쑀니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YWCA에 연건평 500평 이상의 건물을 주십시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이 드나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건축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했고, 당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YWCA에서 활동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신성의 : 네, 오늘 이 인터뷰 하는 이 코너의 이름이 ‘원로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존경하는 순천YWCA의 선배지도자를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춘애 : 제가 순천YWCA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은 김순영 증경회장님과故 박영자 회장님입니다. 먼저 김순영 회장님은 젊은이들과 후배들이 일할 수 있

게끔 늘 격려하고 조언해주시는 분이시지요. 다른 지역에서 순천을 방문하시면 모든 분들이 그분을 찾으실만큼 전국을 아우르는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YWCA들이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긴 세월동안 끈끈하게 이어져 온 정들이 있는데,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번 70주년 행사 때 Y-틴 회원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정영장학기금을 만드신 분이故 박영자 회장님입니다. 정영장학기금으로 1억원, 순천YWCA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해주셨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다 베풀지는 않는데, 그분은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지요.故 박영자 회장님의 장례식을 YWCA 장례로 치르게 되어 조사를 제가 맡았어요. 저는 제 친형제가 떠난 것보다 더 슬펐어요. 조사를 쓰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며 회장님을 기억할 때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많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신성의 : 이제 순천YWCA가 어느덧 70주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순천YWCA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춘애 : 사람의 나이가 70세면 많이 늙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YWCA는 시대가 흘러도 청년 YWCA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젊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있는 젊은 이사들을 지도력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하려면 지도력을 키우는 곳, 또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00년을 향해 가면서 젊은 청년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YWCA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성의 자립과 가정회복을 돕는 생명살림 공동체

- 논산YWC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름타운'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는 매달 회원YWCA 부속시설, 동아리, 소모임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YWCA 회원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번 호에서는 논산YWC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름타운'을 찾았다. (글: 편집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4시간

'아름타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큰 아름드리 나무이다. 김은혜 아름타운 소장은 "아름타운이라는 이름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이 곳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한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아담한 가정집 분위기의 쉼터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장단기 시설을 포함해 70개소(2015년 6월 30일 기준)에 이른다. 2010년 10월부터 논산YWCA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아름타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대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 지원시설이다.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입소자들과 같이 365일 생활하며, 24시간 교대근무로 일한다. 가정폭력 사건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피해 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뛰쳐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짐조차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소자의 70퍼센트 정도는 지역 내에서 오지만, 경기나 경북 등 먼 곳에서도 센터를 찾는다. 이곳에서는 의식주 제공과 의료기관 이용지원, 심리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이혼소송 등 무료 법률상담,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훈련도 연계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쉼터의 입소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뿐 아니라 동반자녀(19세미만 남아)까지 가능하다. 쉼터에서는 아동,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입소자들은 시설 입소 후 1~2주 정도 마음과 몸의 휴식을 취하고 청소와 식사 당번을 정해 머무르는 동안 역할을 감당한다. 주1회 정기적인 가족모임을 통해 서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규칙을 논의한다.

'쉬는 게' 가장 어렵다는 입소자들

김 소장은 쉼터 입소자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쉬는 것'이라는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다. 늘 자식과 남편,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지내다가 막상 입소하면 오히려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했다.

그렇게 쉬는 동안 그간 폭력으로부터 겪은 아픔으로 온몸 마디마디가 아파온다. 한 입소자는 6개월 내내 물리치료만 받다가 퇴소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몸을 처음으로 온전히 돌아볼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폭력은 비단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고통도 동반한다. 입소자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입소자들끼리 소통하고 생활하는 데도 예민한 편이다. 이를 중재하고 보듬는 것은 실무활동가들의 몫이다. 현장이 사무실이 되고, 공동체가 현장이 된다.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잠을 청한다는 실무활동가들을 대신해 김 소장은 쉼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생명사랑공동체인 YWCA가 해야만 하는 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하기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입소자들의 자립과 가정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은 입소자 모두가 논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한 '여성으로서 당당한 나 찾기' 취업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따뜻한 봄볕에 어울리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한 잔씩 들고 행사를 다니며 정보를 알아보는 활동만으로도 이들의 표정과 마음까지 밝아졌다. 자립의 기회를 스스로 찾아보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여성 자립엔 협업구조가 중요

처음에는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소송을 준비한 피해 여성이 상담소와 연계해 부부상담과 가족치료를 통해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상담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하여 자격증 공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손재주가 남다른 입소자 중 한 명은 손뜨개로 수세미를 제작해 장터에서 팔기도 했다. 김 소장은 인근 병원이나 식당에 판매처를 연계해주기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조해 자립 지원을 돕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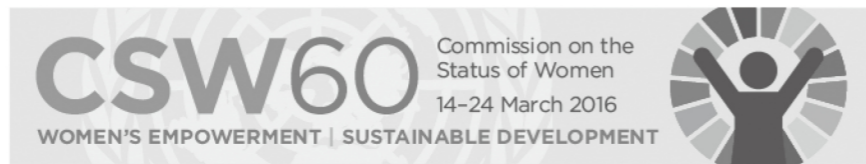
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하는 일에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 여성이 다른 피해 여성들을 살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고, 가정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김 소장은 폭력 피해여성들이 단단해지고, 더욱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이 어느 때에라도 내 문제, 내 주변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생명을 위해 공동체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업하는 구조가 중요하며, 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전국 YWCA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가 앞으로도 생명살림 공동체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여성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연계

한국YWCA연합회는 2016년 3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열린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한미미 실행위원과 3명의 청년대표를 선발해 뉴욕 유엔본부에 파견했다. 참가자들의 기록을 통해 이번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이하 CSW)의 이슈와 논의과정을 살펴본다.



시리아 난민 여성의 절규

신보미 (청주YWCA 간사)

이번 제60차 여성지위위원회(CSW)의 주제는 ‘여성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연계(Women Empower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각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과 수준으로 펼쳐졌다. CSW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와 NGO들은 유엔 여성기구

(UN Women)의 5대 과제¹⁾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기반으로 흥미로운 포럼을 개최하였고, 다양한 국제이슈를 논의하였다.

특히 강한 인상을 남긴 두 포럼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5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문제’ 포럼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시리아 난민 여성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아닌 사회를 향한 울분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인구 절반이 난민이고, 그 중 1백만 명이 나라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

생존을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시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했다. 육체적 힘을 가진 자들에게 당하는 폭력, 아픔 가운데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희생 등 여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홀로



여성폭력추방(No Xcuses) 마크를 한 회원국 YWCA 참가자들

1) 여성 리더십과 참여의 증진; 2) 여성폭력의 추방; 3)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 참여 증진; 4)여성 경제권 신장; 5) 정책과 예산 의사결정과정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서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는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또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총과 피로 얼룩진 DMZ를 향해 걸었던 여성의 걸음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해 진행된 Women Cross DMZ(WCD)를 알리는 포럼은 수백 명의 인원이 서서 들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대한민국에서 DMZ를 건넌 WCD 멤버들이 각자의 결의, 평화의 발걸음을 위해 노력한 배경과 이유를

나누고 CSW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고 함께했다.

여성 기독 청년으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미래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믿는대로 한 개인이 변화하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YWCA는 여성의 리더십으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끌어갈 주체임을 굳게 믿는다.

We are HERE, We are the Youth!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간사)

올해 CSW 60(UN 여성지위위원회)는 본격적인 본 회의 시작에 앞서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토론과 네트워킹의 장으로 청년 포럼(Youth Forum)을 개최했다. 청년 포럼은 현 시대의 청년활동가로서 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문화·경제의 문제와 성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틀간의 결과물로 청년 포럼의 선언문이 만들어졌고, 이를 안토니오 파트리오타(Antonio de Aguiar Patriota) UN CSW 의장에게 그 내용과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세계 각국의 25세 미만 활동가들은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위해 열정적이고도 주체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행동하고자 뛰어난 활동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지역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목소리를 내며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활동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마지막 세대라는 인식을 가진 활동가들과의 만남은 새내기 실무활동가인 내게 흥미롭고도 활력이 넘치는 배움의 현장이었다.



세계의 청년들이 당사자 이슈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나와 이웃이 속한 사회구조를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직접 행동하며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그룹 토의시간 중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논의하는 이슈들에 있어서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나의 고민을 토로하였을 때, 미국에서 온 활동가는 “나누는 것이 곧 관심을 갖는 일이야!(Sharing is Caring!)”라고 조언하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주변에 계속 공유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이고, 그들을 사회 안에서 돌보는 일이라는 고마운 조언이었다.

청년 포럼의 진정한 의미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청년

들이 제안한 선언문을 CSW 의장이 직접 전달받고 정책 방향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세대 간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마다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SNS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세계로 전달하자

김예림 (안산YWCA 대학·청년Y 회원)

4박 5일의 CSW 기간 동안 수백 개의 포럼을 통해 수많은 안전과 이슈들이 다뤄졌다. 유엔 본부에서 주최하는 메인 포럼도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NGO 주최의 워크숍(side events)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메인 포럼보다도 세계YWCA에서 주최한 애드보커시 워크숍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워크숍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용해 여성과 어린이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워크숍이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SNS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힘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세계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영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단체나 기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색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처음 체험해보고, 회의기간 내내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CSW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YWCA 참가 대표들은 꽤나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어 놀랍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트위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CSW60 트위터 계정이 따로 있어 주요 이벤트와 광고를 트위터를 통해 자주 공지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트위터가 아주 영향력 있는 도구인데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트위터로 소통하는 방식을 낯설어했었다. 다행히 워크숍을 통해 자세한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SNS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진과 일상을 남들에게 공유하는 곳을 넘어서서, 소외계층을 대신하여 목소리와 그들의 생각을 널리 알리고 강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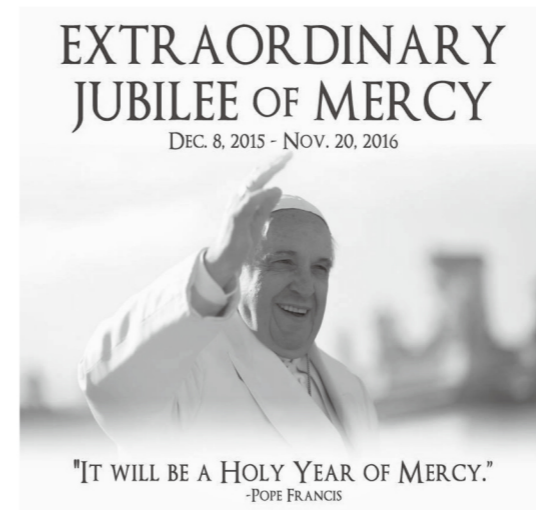
한국YWCA도 다양한 SNS를 잘 활용하여 애드보커시를 더욱 확대하고,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포럼장에서 만난 캐나다 트뤼도 총리

성경 속 '희년'을 문화 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한다면

양희승 (청어람ARMC 대표)



자비의 특별희년 선포

올해 초 책을 한권 내었다. <이매진 주빌리>란 제목으로 '희년' 사상의 유래와 현대적 적용을 다룬 책이다.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천주교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자비의 특별희년(The Extraordinary Jubilee of Mercy)'을 선포하였다.

현대 가톨릭교회 역사에는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회 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전세계적인 '자비'의 실천을 기대할 계기다. 다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시기에 로마를 향한 전세계적인 성지순례 물결이 일어나고 신자들의 신심을 돋우는 계기가 되지만, 이런 순례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이 기대하는 '보속의 교리' 등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시기 '면죄부' 등을 상기시키

는 대목이 있어 온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희년(jubilee)'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지만, 정작 성도들에게는 낯선 주제이다.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자면, 레위기 25장은 '희년'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 칠일은 안식일로 지키라, 제 칠년은 안식년으로 지키라, 일곱 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으로 지키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안식일에 노동을 쉬는 것처럼, 안식년에는 땅이 쉬어야 한다. 희년에는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줄 뿐 아니라, 부채를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시켜야 한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땅이 배분되고, 그 땅은 친족과 가족 단위로 고르게 나누어지는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빚을 지거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회를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리자는 신적 명령이다. 50년째 되는 해의 대속죄일에 이르러 요벨(yobel) 혹은 쇼파르(shofar)라 불리는 뿔나팔을 크게 불면 '희년'이 선포되어 노예는

해방되고, 해묵은 부채는 탕감받고,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려진다. 안타깝게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전폭적으로 실천한 사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주의 은혜의 해(The Year of Lord's Favor)'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희년'을 일컫는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신약의 많은 비유와 상징들(예를 들면, '빛 탕감 받은 비유', '자기 재산/땅을 팔고 주를 따른 이와 이를 팔지 못하여 따르지 못한 자',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 등)이 희년의 실천을 담고 있다는 점은 늘 성경을 읽는 이들도 놓치는 지점이다. '희년'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희년' 사상이 우리 신앙에 제자리를 찾기만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사회의 제도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상상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이상을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고려할 지점이 많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를 사회제도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상상하고 가시화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희년'을 갖고 어떤 참신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희년'을 상징하는 요벨을 적절히 재구성해 볼까? 아니면 '희년'에서 벌어지는 토지반환, 부채탕감, 노예해방을 가시적 이미지로 구성할까? 그도 아니면 '희년'의 벽찬 감정을 빛과 색의 조합을 통해 인상주의적으로 포착해볼까? 구체적 묘사여



요벨 혹은 소파르로 불리는 희년의 나팔

야 할까, 추상적 개념화여야 할까? 혹은 반대로 가장 '희년'과 먼 모습을 포착하여 '희년의 부재'를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시켜야 할까?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지만 정작 주목되지 않거나,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많다. '희년'이 그러하지만, '용서'나 '화해' 같은 용어도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는 꽤 멀리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신앙은 '성공', '만족' 등을 더 지배적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언어와 상징을 잃어버리면 소통의 지체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죽음'이나 '고통'을 다룰 언어가 이토록 부재하고, 이를 적절히 담아낼 정서적 감수성이나 치유적 상상력이 턱 없이 모자란다는 점을 새삼 발견하였다. 작은 숙제를 해보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문화적으로 담아내는 작은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이들의 작업을 지지하고 고무선동 해보자.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

연합회 소식 4월

4월 월례 아침기도회

2016년 4월 YWCA 월례 아침기도회가 4월 1일(금)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은혜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전했다. 연합회와 회원YWCA 회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중점운동을 전개하고,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생명과 평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한 8월에 있을 전국회원대회 준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101~104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YWCA는 탈핵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101차(3월 22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주관, 103차(4월 5일)는 수원YWCA 주관, 104차(4월 12일)는 남양주YWCA와 하남YWCA 공동 주관으로 서울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5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

5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10일(목) 중부지역, 3월 22일(화) 서부지역, 3월 24일(목) 경기지역, 4월 1일(금) 북부지역, 4월 8일(금) 동부지역의 순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2016년 회원증모 워크숍에서는 회원YWCA별로 회원 증모 계획을 소개하고 창의적 방안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에)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연합회는 3월 11일(금)부터 19일(토)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여성지위위원회(CSW)에 한미미 실행위원(세계YWCA 부회장)과 3명의 청년대표로 김상은 연합회 간사, 신보미 청

주YWCA 간사, 김예림 안산YWCA 회원을 파견했다. '여성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연계'를 주제로 열린 위원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청년포럼과 세계YWCA 주관 워크숍 등에 참가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에)

제1차 전국 사무총장협의회

2016년 제1차 전국 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연합회 강당에서 1박 2일로 열렸다. 회원YWCA 사무총장 51명이 참석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의 '한국YWCA의 성평등 운동에 관한 주제 강연'을 듣고 운동 정책 워크숍과 운영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4.16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사건과 우리 시대의 정의'를 주제로 박영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의 특강을 듣고, 정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공급 찬반 주민투표 후원과 지원

연합회와 회원YWCA는 3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실시된 해수담수 수돗물공급 찬반 주민투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연합회와 5부 지역위원회, 전국 13개 회원YWCA(거제, 군산, 광주, 마산, 목포, 양산, 사천, 서귀포, 순천, 전주, 진해, 춘천, 포항)에서 후원으로 마음을 모았다. 부산YWCA는 제5투표소(동부리)와 제8투표소(신천리·청강리)의 운영을 집중 지원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율인 3분의 1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투표자 중 89.3%(1만 4308명)가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해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3월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6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어 연합회 후원단체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 언론, 학자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연합회와 경기지역 YWCA(고양, 부천, 안양)가 참석했다.

키다리학교 입학식

전국 11개 키다리학교 회원들이 참석한 2016년 키다리학교 입학식이 3월 19일(토)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지난 2월 23일(화) 열렸던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을 통해 지난 한해의 활동을 정리했고, 이번 입학식을 통해 새로운 한해의 활동을 다짐했다. 키다리회원과 운영진 등 170여 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조별 활동과 '팀 리더십'을 위한 문화활동, 연극관람 등을 하며 키다리만의 2016년 활동을 다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래교실 협약식



연합회는 3월 23일(수) 한국씨티은행과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다래교실' 협약식을 열고, 20만 달러(2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2016년 '다래교실'은 전국 9개 회원YWCA(논산, 안산, 의정부, 진주, 진해, 청주, 충주, 파주, 하남)와 2개 기관(지구촌사랑나눔, 한국폴리텍 다습학교)에서 운영한다. 2016년에 새로이 선보인 '다래교실 비전교육 교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 비전설계, 진로탐

색, 취업준비 영역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Y-틴 전국간사협의회

3월 29일(화) Y-틴 전국간사협의회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Y-틴 담당 실무활동가 35명이 모여 2016년 Y-틴 중점활동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강의를 듣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단체로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 담당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에)

제1차 1단계 실무자 교육

3월 30일(수)부터 4월 1일(금)까지 2박 3일간 제1차 1단계 실무자 교육이 진행됐다. 전국 YWCA 본부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YWCA 운동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과 Y운동가로서 비전과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성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YWCA의 운동과 정체성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활동가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나누었다. 제2차 교육은 4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방문

연합회 연변지연특별위원회는 3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해 제13주년 회원의날 행사를 참관하고, 이사와 위원 교육, 사무실 이전 관련 행정사항을 점검했다. (자세한 내용은 24쪽에)

연합회 신임 실무 활동가

- 이민정 팀장(협력사업팀) 2016. 3. 14
- 신미희 부장(홍보출판위원회) 2016. 3. 16
- 김태연 팀장(복지사업단, 생명꿈나무돌봄센터) 2016. 4. 1
- 손서정 간사(평화통일위원회) 2016. 4. 1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다문화이해 멘토링 교육



가족복지위원회 주관으로 3월 21일(월) 오후2시 강릉YWCA회관에서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멘토멘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배영란 속초YWCA 사무총장(전 다문화지원센터장)이 풍부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이해를 돕는 강연을 했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20대 총선 YWCA 정책제안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3월 22일(화) 오후2시 동해YWCA회관 강당에서 '생명세상을 만드는 여성, YWCA 정책제안회'를 열었다. 이번 제안회는 연합회와 동해YWCA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 의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YWCA 지향가치가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생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배포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중부교육지원청과 체육프로그램 협약

서울YWCA는 3월 29일(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체력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유·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은 서울YWCA 스포츠센터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대학생 소비자캠페인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속초YWCA는 대학교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 30일(수) 고성군 소재 경동대학교 앞에서 '대학생 소비자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이 '스마트 컨슈머'로서 합리적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브로슈어와 밴드를 나눠주었다.

인천YWCA

황진아 간사

제20대 총선 후보자 정책실천 협약

3월 30일(수) 오전10시 인천YWCA회관 강당에서 제20대 총선 정책실천 협약식을 열고, 12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YWCA 중점운동인 '탈핵'과 '성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각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당선 후 관련법 제정과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인천YWCA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당선자의 정책실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탈핵

과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규교육



지난 3월 7일(월)부터 29일(화)까지 만50세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케어를 위한 건강관리사 신규교육이 80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전문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자녀 산후조리를 직접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준고령자 여성들의 경우 산모돌보미 활동으로 자아실현과 경제활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21명이 수료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키다리학교 '스위치를 끄고 북극곰의 내일을 켜다'

고양YWCA 키다리학교는 '스위치를 끄고 북극곰의 내일을 켜다'란 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텃밭 가꾸기를 통한 생산소비 일체, 저소득층 가구에 수확물 나누기 등을 펼친다. 4월 2일(토)에는 1년간 가꿀 텃밭에 관한 기초

공부를 한 뒤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상추와 보리를 심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양주YWCA 이정은 간사

탈핵 및 에너지전환 '불의 날' 캠페인



3월 22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부근 금곡사거리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남양주YWCA는 태양광, 풍력으로 탈핵 세상을 여는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걸고, 차량용 스티커와 탈핵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어 탈핵정책을 찬성하는 총선후보 지지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3.8 세계여성대회 기념 캠페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우렁각시, 희망나눔, 전국가정관

리사협회 등이 속한 부천시 돌봄네트워크와 원미산 산행을 했다. 산행 전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자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산을 오르며 서로를 격려한 참가자들은 앞으로 활동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성남YWCA 전아영 간사

탈핵 캠페인

4월 7일(목) 아탑역 광장에서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남YWCA가 주최하고 성남환경단체와 연합으로 진행한다. 단체 대표들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에 대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아동청소년 인권 시민특강

3월 31일(목) 회원과 수원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인권 시민특강을 진행했다. 강지원 인권변호사가 '우리 아동·청소년, 행복한가-아동학대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한 행복의 개념과 아동학대의 종류, 비율,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여성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안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특화 취업박람회를 3월 30일(수) 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 여성구직자 150여 명이 참여했고, 9개 업체의 현장면접을 통해 12명이 채용되었다. 또한 취업지원을 위한 구직과 교육상담, 직업 타로카드, 이력서 사진촬영, 3D프린터 체험 등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Y-틴 및 대학·청년Y 인준



3월 26일(토) 안양YWCA 강당에서 Y-틴과 대학·청년Y 인준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활동을 함께할 70명의 회원들은 민들레의식과 인준식, 선서 등을 통해 YWCA다운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중점 주제를 위안부 문제로 정한 Y-틴은 깊이 있는 역사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모금활동과 홍보활동을 펼친다. 대학·청년Y는 주체의식을 가진 청년이 되기 위한 인권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청년 운동성을 기를 예정이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새일 첫 월급 행복데이' 개최



의정부YWCA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일 첫 월급 행복데이'가 3월 9일(수) 새소망 요양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60세가 넘는 고령자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임경자 위생원이 첫 월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취업한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급여를 받는 기쁨을 느끼며, 직장동료와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경험도 나누었다. 의정부YWCA는 경력단절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해 4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

논산YWCA 권연정 간사

2016년 다래교실 개강



논산YWCA 청소년위원회는 3월 29일(화) 다문화시대 청소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2016년 다래교실을 개강했다. 한국 씨티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다래교실은 논산공업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비전인식 확립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전교육,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비전을 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YWCA 김지찬 팀장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



4월 6일(수) 오전 10시30분 회원, 자원지도자,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감사 예배는 대전YWCA 합창단의 특송을 시작으로 이성호 대전제일감리교회 목사의 '일흔 살의 핵심가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위원회별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제천YWCA 김미경 간사

요양보호사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고령자인재은행에서는 3월 21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요

양보호사 교육을 수료했으나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준)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요양보호사)을 진행했다.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보여준 참가자들은 전원합격을 목표로 성공적인 취업을 다짐했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2016년 회원환영회



광주YWCA는 매년 회원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살리고 회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환영회를 열고 있다. 3월 15일(화) 오후 2시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6 회원환영회가 열렸다. 환영예배를 시작으로 정운순 회장의 환영사, 신입회원 소개에 이어 회원한마당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거운 소통과 어우러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광주YWCA는 올해도 7천여 회원들과 함께 돌봄·나눔의 평화공동체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부활절 차나눔 봉사활동



3월 27일(일) 부활절을 맞아 이사진,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이 남원서남교회에서 부활절 차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부활절 합동예배에 참가한 남원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차와 떡을 나눠 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또한 부활절 예배를 하고,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이룬 주님의 뜻을 묵상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목포YWCA 관수현 부장

창립 69주년 기념예배 및 장학금 수여

4월 9일(토) 이사, 위원, 장학생,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9주년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목포제일교회 박승호 목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교와 흥현숙 이사의 특별찬양으로 영성을 다지고, 69주년 생일축하 떡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축하했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목포YWCA가 목포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한 2016년 목포YWCA 장학생 25명(대학원 1명, 대학생 6명, 고등학생 18명)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아름다운 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3월 29일(화) 서귀포시 일대에서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 4월 13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방법,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투표시간을 집중 홍보했다. 서귀포매일올레시

장과 서귀포 시내를 돌며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유권자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에너지 절감 10%' 사업 협약



에너지시민연대지원으로 3월 16일(수) 여수YWCA회관 회의실에서 '에너지 절감 10%'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기관은 여수엠블호텔, 마띠유호텔, 히든베이호텔로서 직원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실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탈핵운동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사업은 다른 기업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기업간 에너지절약 운동을 선도하고, 호텔이용객과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진행하게 된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상반기 이사연수



3월 25일(금)부터 26일(토)에 상반기 이사연수를 진행했다. 정숙 안양YWCA 증경회장이 이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YWCA 목적과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사 공동체의 결속과 하나님 나라 운동 확장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탈핵찬성 후보 지지 탈핵캠페인



전주YWCA는 3월 29일(화) 오후2시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탈핵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 에너지정책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 운동도 진행했다. 전주YWCA는 매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2시 전주YWCA회관앞에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찾아가는 치안간담회



3월 25일(금) 오후3시 제주YWCA 강당에서 임원, 이사, 여성계 인사와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치안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범법자 색출을 위한 언어 소통 완화, 과적차량 단속,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장애 단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이용하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청소년과 소외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동부

거제YWCA

홍윤정 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거제YMCA와 거제YWCA가 연합으로 3월 22일(화) 오후6시 30분 거제시 공공청사에서 201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및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 활동을 시작했다. 하락중 거제YMCA 사무총장, 강류안 경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무국 회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는 삼성중공업 청소년선도 119봉사단, 대우조선해양 유도동아리도 함께 했다. 감시단원은 거제지역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과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애들아 밥 먹자' 캠페인

김해YWCA는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4월 6일(수)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정문에서 김해시온중앙교회가 밤새 만든 주먹밥과 우유, 과일 등을 등곳길에 나눠주며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기 성장과 건강을 위해 아침밥을 먹도록 권장하고 패스트푸드보다 쌀, 야채, 과일 등 자연식품 위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가정내 대화시간으로 내적 치유를 함께하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고려냉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농협은행 김해시지부, 장유농협, 김해축협, 장유농협, 고려냉장, 동양백이 참여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신입 이사, 위원, 실무자 기초교육

3월 21일(월) 대구YWCA를 이끌어갈 신입 이사, 위원, 실무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증경회장과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대구YWCA 90년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뤄진 이번 기초교육은 YWCA 정신을 다시한번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YWCA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지역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이 끝난 뒤 대구YWCA 부속기관 4곳을 돌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고 있는 기관장과 실무자들을 만났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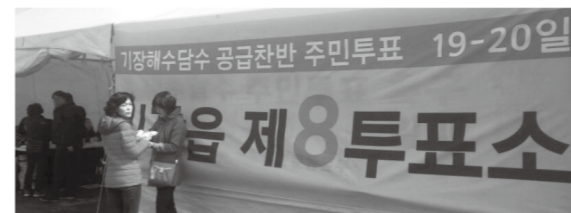
대학Y 회원훈련과 유권자 교육

3월 22일(화) 경남대학교 강의실에서 대학Y 회원 100여 명이 모여 YWCA 회원훈련과 유권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YWCA 설립목적과 중점운동을 알아보고, 청년 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4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린 단합대회에서 70여명의 대학Y 회원들은 '햇빛모아 탈핵하자'는 제목으로 핵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기장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활동 지원



150여 명의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은 3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등 1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 관리사무원 봉사를 지원

했다. 유권자 6만 9931명 중 1만 6014명이 참여해 26.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결과는 반대 1만 4308명(89.3%), 찬성 1636명(10.2%)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보여준 주민 여론을 총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YWCA가 지향하는 생명과 탈핵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아이돌보미 정기 월례회

사천YWCA 돌봄사업단은 3월 29일(화) 오전11시 아이돌보미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YWCA 강당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2016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기본사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아이돌보미 교육 일정을 논의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이사·실무자 워크숍



3월 12일(토) 원동면 배내 허브랜드에서 이사·실무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말순 양산YWCA 회장이 'YWCA의 역사와 YWCA 정체성'을 강의했으며 이사·실무자들이 YWCA를 더욱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사·실무자들의 모둠활동으로 양산YWCA 10주년 기념행사 계획과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론하고 발표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4월 4일(월) 울산YWCA 강당에서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오순숙 대전YWCA 경증회장 강의로 시작된 이날 발대식은 회원증모 다짐의 시간, 운동가 제창 등으로 꾸며졌다. 문상순 대전YWCA 회장은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라는 슬로건으로 정의, 나눔, 평화, 청년리더십 개발에 힘을 모을 회원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속에 치러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민들에게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3.15 진주시민 탈핵행동의 날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YWCA 10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기념하는 진주시민 탈핵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3월 15일(화) 오후1시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핵을 반대합니다’ 플래시몹,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정책제안서 낭독,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 게릴라서명, 방제복착용 탈핵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YWCA 회원들과 YWCA어린이집 원아들의 탈핵 호소에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며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진해YWCA 엄정희 간사

공명선거캠페인



진해YWCA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함께 3월 14일(월) 공명선거운동 발대식 및 감시·고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진해YWCA는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원YWCA 정미영 간사

대학Y 청렴총선소 ‘청렴선거 캠페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렴’ 특강을 진행한 대학Y 회원들이 청렴한 정치문화 확산을 위해 4월 8일(금) 창원대, 11일(월) 경남대에서 각각 청렴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청렴실천 다짐문 적기, 캘리그래피 청렴좌우명 체험을 비롯해 부정부패로 얼룩지지 않는 청렴한 선거문화를 이끌어가는 활동이다. 또한 대학Y는 창원YWCA가 추진하는 탈핵후보 지지 캠페인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서명운동도 지원한다. 아름다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는 청년들이 아름답다.

포항YWCA 황인주 부장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 계란 나누기



3월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기 위한 ‘부활란 나누기’를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 등 30여명은 이날 포항시, 포항고용센터, 교육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포스코, 영남에너지서비스 등 기업체와 학교 및 언론사 등 100여 곳을 방문해 부활란을 전달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다.

4월 · April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창립기념일 목포Y (1947.4.1.) 북부지역 회원증모 워크숍	2 Y-틴 중앙임원회의
3	4 안산Y 산모돌보미 양성교육 (~18일) 양산Y 직업훈련교육으로 CAD실무자 과정 개강 울산Y 회원증모발대식	5 창립기념일 인천Y (1970.4.5.) 인천Y 46주년 창립기념 월례기도회	6 강릉Y Y-틴 인준식 거제Y 청춘노인대학 개강식 대전Y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예배	7 성남Y 탈핵 캠페인	8 동부지역회원증모 워크숍 제천Y 직원 워크샵 창원Y 청렴선거&탈핵 후보지지 캠페인 (창원대) (~11일)	9 목포Y 창립69주년 기념예배 및 장학금수여식 여수Y Y-틴&대학Y 인준식 울산Y Y-틴·대학Y 인준식 포항Y Y-틴 인준식
10 창립기념일 대전Y (1946.4.10.)	11 양산Y 직업훈련교육 단체 급식조리사 과정 개강 의정부Y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요양실버서터교육 (~22일)	12 인천Y 회원증모 발대식 창원Y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여성 인권 이야기 (~6월)	13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4	15 광주Y 2016 제1차 이사·위원 연수회 속초Y 직원실무자교육	16 목포Y 2016년 대학Y 및 Y-틴 인준식
17	18 창립기념일 진해Y (1990.4.18.) 수원Y 아이돌보미 교육 (~22일)	19 YWCA 전국 회장단 연수(~20일)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 고양Y 성인지교육 (~28일)	20 한국YWCA 창립 기념일(1922.4.20.) 창립기념일 동해Y (1987.4.20.) 고양Y 이사위원연구모임 마산Y 회원DAY 포항Y 회원증모발대식	21 창립기념일 대구Y(1923.4.21.) 전주Y(1968.4.21.) 전주Y 북한이탈주민 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2016 나눔이 있는 봄 장날 (~22일)	22 생명꿈나무돌봄센터 보육사 교육(~23일)	23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 베테스다 공연 진주Y 카다리꽃살교실 창단
24	25 쌍곡머니 씨타강사교육 수원Y 살림돌보미 교육 (~29일)	26 여수Y 회원증모발대식 춘천Y 창립50주년 기념 예배 및 출판기념회	27 제2차 1단계 실무자 교육 (~29일) 서부지역 아카데미 정책교육 서부지역 신임 이사·위원장 교육	28 에너지자립 정책 워크숍 (~29일) 창립기념일 의정부Y (1979.4.28.) 광주Y 소심당조아라기념사업회 기금마련 후원회	29 익산Y 돌봄 인권 관련 캠페인	30 제2차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

전국 회원YWCA에서 보내 온 한국YWCA 창립 94주년 축하 메시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생명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의 비감을 알리는
한국YWCA가 도기를 바라며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릉YWCA

생명평과 사랑을 존중하는
한국YWCA 창립94주년을
축하합니다.
거제YWCA

사랑이 먼저인 생명을
살리는 운동체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
경주YWCA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합니다.
100주년을 향한 한국YWCA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세상을 만드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양YWCA

소외되고 무시되고 인간들에게
희망을 준 YWCA! 파리된 세상을
향해 생명의 흐름을 주는 YWCA!
따래의 생명세상을 이끌어갈
YWCA 파이팅!!
광명YWCA

여성지도력의 메카,
생명 평화 정의사회
구현에 앞서는 나가는
한국YWCA 94주년
따래 다해 축하드립니다!!
천안YWCA

생명의 비감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조건 아래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광양YWCA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평과
평화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광주YWCA

하나님의 사랑과 정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끌어갈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합니다
김해YWCA

축! 창립 94주년
한국YWCA!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양주YWCA

생명의 비감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남원YWCA

유한한 분산국가인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에 빛나게 하소서!
안동YWCA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국YWCA 94년의
기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산YWCA

태양과 비감의
세상을 여는
한국YWCA 창립9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양YWCA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 52개
YWCA를 이끌어 가시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성YWCA

생명의 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멋진 여성들이 모인
한국YWCA 창립94주년을
축하합니다~ ♡
여수YWCA

정의로 사랑이 움직이고
나눔으로 가슴이 뜨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논산YWCA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끄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구YWCA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한국YWCA 운동을
지시하며 창립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전YWCA

함께 만들어가는
YWCA 생명평화세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해YWCA

우리는 모두 생명 사랑
평화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여별
한국YWCA의 창립 94주년에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마산YWCA

지역사회변화를 위해
알고 싶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YWCA가 가는 길에
평행했으면 감사드립니다.
94주년 축하합니다~!!
홍천YWCA

한국YWCA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원주YWCA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여성기독교NGO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한국YWCA 9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의정부YWCA

생명평화비감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익산YWCA

한국YWCA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YWCA를 사랑하고 의식을
가진 이 세대가 YWCA를 그리고
한국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YWCA 파이팅!!
안성YWCA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국YWCA
창립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포YWCA

정의와 평화를 품고
생명 탈락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딸,
한국YWCA의 94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부산YWCA

눈물의 기도, 피와 땀으로
알려온 한국 94년!
그 기도와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천YWCA

생명의 길 탈락의 길에
앞서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천YWCA

긴 시간 땀 흘려 헌신한 선배들의
수고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YWCA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감사드리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키우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서구YWCA

새해전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국YWCA 94주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전주YWCA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꽃피우는 행정운동체,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YWCA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천YWCA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건전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진주YWCA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널리 알리는 한국YWCA
창립94주년을 축하드리며
전해YWCA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남YWCA

한국 여성들의 뿌리깊은 나무
YWCA 94년에 감사드리며,
그 나무에 더 알차게 기를
정의, 평화, 생명의 열매를
기도합니다.
서울YWCA

아름다운 계획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천YWCA

대한민국 사회의 리더로
함께 갈라온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남YWCA



변화를 주도하는 한국YWCA의
열정이 100주년까지 퍼져나갈
나라를 94주년 생일로
축하합니다.
창원YWCA

하나님의 진로 세대를 품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합니다
변화를 위한 희망을 품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욱 높이
비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안YWCA

생명의 봄을 갖고 온
한국YWCA 생명의 새싹을 틔워
겨울 이겨내는 생명의
몸짓이 한국YWCA의
94년입니다. 축하합니다.
청주YWCA

여성이 미래다!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춘천YWCA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살리면서 생명평화운동을
펼치는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주YWCA

생명의 비감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전하는
한국YWCA의 창립94주년을
축하하며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세종YWCA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확장시키시는
게시카벨가 도기를 바라며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원YWCA

한국YWCA 94주년을
축하하며 52개 회원Y와
함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평화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YWCA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국YWCA가 책임집니다.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통영YWCA

한국YWCA
창립 94해를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파주YWCA

어렵고 힘든 시대부터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한국YWCA의 창립
9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YWCA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회원YWCA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YWCA

한국YWCA는 꿈과 주님을
알게 합니다. 120개국과 52개
회원YWCA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한국YWCA
창립 94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남YWCA